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4.20원 상승한 1,228.00원에 마감

14일 달러-원 환율은 미중 갈등 심화 및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전 거래일 대비 4.20원 상승한 1,228.0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28.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이후 환율은 미중 갈등 가능성,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당국의 경계에 상단이 막히면서 1,220원 후반을 중심으로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마감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1,228.00원에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27.9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48.84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28.00	1229.40	1226.70	1228.00	1227.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41.95	1150.44	1141.95	1146.88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2	-2.06	-4.81	-10.21
결제환율(수입)	0.22	0.26	-0.96	-3.5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전망

미중관계 악화와 경제 재개 기대 ... 1,220원 중후반 박스권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발언 및 미국의 경제 재개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며 박스권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28.00원) 대비 0.45원 하락한 1,227.5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에 있지만 그와 대화할 마음이 현재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며 미중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상의 발언은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키는 발언에 해당한다. 다만, 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미국의 대부분 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미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금일 환율은 이상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되며 1,220원 중후반에서 박스권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24.00 ~ 1230.7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520.91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45원 ↓
	■ 美 다우지수 : 23625.34, +377.37p(+1.6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6.6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86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